

대한불교청년회의 한용운 정신 계승

김광식*

• 목 차 •

I. 서언

II. 대한불교청년회와 만해 한용운

III. 1960년대 대한불교청년회의 노선

IV. 1970년대 대한불교청년회의 노선

V. 대한불교청년회의 뿌리 찾기

VI. 결어

* 전 동국대 특임교수, 대각사상연구원 연구부장.

© 『大覺思想』 제39집 (2023년 6월), pp.173-204.

한글요약

이 고찰은 대한불교청년회의 한용운 정신의 계승 문제를 살핀 논고이다. 필자는 한용운의 정신 계승 및 실천의 역사를 집중적으로 조사하여 탐구하고 있다. 이는 만해 한용운의 연구 외연을 확대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다. 현재, 한용운 사상의 계승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단체 중에서 대한불교청년회는 그 중심에 있다. 그러나 그에 관련된 자료집 발간, 학술적인 정리는 부재하다.

이런 전제하에서 필자는 이 고찰에서 대한불교청년회 한용운 정신 계승에 대한 문제를 몇 가지 주제로 분류하여 조사하였다. 그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의 대한불교청년회가 한용운을 대한불교청년회의 역사에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를 조사하였다. 둘째, 1960년대와 1970년대의 대한불교청년회에서 한용운의 인식, 계승에 대한 역사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1960년대는 화랑정신, 조계종단의 이념, 임진왜란의 의용승군 정신은 계승하였다. 그러나 한용운에 대한 인식은 부재하였다. 1970년 3월 서울 탑골공원에 한용운 비석이 건립되자 일시적으로 한용운에 관심을 가졌다. 이때 대불청 창립 50주년 기념사업으로 만해 강연회를 주최하였다. 셋째, 한용운 사상에 대한 계승실천이 구체적으로 대두된 시기, 구체적인 사정을 조사하였다. 그는 1978년에 등장한 선진규 집행부의 대한불교청년회 역사 찾기 사업에서 비롯되었다. 선진규 집행부는 한용운 탄신 100주년을 기념하여 만해 묘소 참배, 만해의 세미나 및 강연회 개최, 백일장 대회를 추진하였다. 이런 사업의 추진은 그 이후에도 지속되었다. 이런 사업은 기본적으로 민족주의 흐름에서 대두된 것으로 보고자 한다.

필자의 이 고찰은 대한불교청년회의 역사 정리, 한용운 연구의 확장, 한용운 정신 계승 단체 연구의 촉진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주제어

대한불교청년회, 한용운, 한용운 비석, 한용운 묘소, 한용운 정신 계승 단체, 선진규

1. 서언

대한불교청년회의 역사 및 문화의 저변에는 만해 한용운이 있다. 필자는 이 글에서 대한불교청년회를 상징하는 주제인 만해 한용운이 어떤 연유로 대한불교청년회의 정체성으로 정립되었는가를 설명하고자 한다. 만해 한용운은 근대불교를 대표하는 인물이다. 만해는 수많은 국민이 존경하는 근대기 한국의 지성인이다. 이와 같은 위상은 문학·독립운동·불교 방면에서 만해가 걸어난 행보에 대한 역사적 평가에서 기인한 것이다. 그러나 그의 정체성과 위상은 그런 역사적 평가를 가능하게 하였던 단체와 인물의 계승 활동에 힘입은 바가 크다. 그래서 필자는 만해학의 확장 차원에서 만해 정신의 계승 및 실천을 한 대상(단체, 인물)에 대한 연구를 시도하였다.¹⁾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 글에서는 대한불교청년회(이하 대불청으로 약칭)의 만해정신 계승의 내용에 대하여 살피려고 한다. 대불청의 연원인 조선불교청년회는 1920년 6월 20일에 창립되었는데, 창립의 주역들은 만해를 따르던 불교청년들이었다. 만해는 3·1운동의 주역으로 3년간 감옥에 구금되어 있다가 출옥한(1922.12.22) 이후, 민족정신의 계몽활동을 하던 때인 1924년 1월 6일에 조선불교청년회의 초대 총재로 추대되었다.²⁾ 만해는 그때부터 1944년 입적할 때까지 불교청년들의 이념 및 노선을 지도하였다. 구체적으로 만해는 일제하 불교청년 단체의 중심인 항일적인 비밀결사체인 靑黨(1930)과 조선불교청년총동맹(1931)의 출범에 도움을 주었다.³⁾ 이런 역사를 인식한 대불청의 구성원들은 만해를

1) 김광식, 『우리가 만난 한용운』, 참글세상, 2011.

_____, 『만해 한용운의 기억과 계승』, 인북스, 2022.

_____,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의 한용운 정신 계승」, 『대각사상』 34, 2020.

_____, 「동국대의 한용운 기억·계승」, 『전자불전』 22, 2020.

2) 『동아일보』 1924.1.8, p.2, 「韓龍雲氏 出陣 불교유신회 총재로」. 기존 규정을 개정하여 간사체를 총재제로 바꾸고 만해를 총재로 추대하였다. 김광식, 「조선불교청년회의 사적 고찰」, 『한국 근대불교사연구』, 민족사, 1996.

존경하고, 만해정신을 계승하려고 노력하였다. 즉 대불청은 불교정신 뿐만 아니라 만해정신을 이념(정체성)의 근원으로 인식하고 만해의 계승사업을 추진하고 있다.⁴⁾

8·15해방 이후의 대불청의 만해 인식은 탑골공원에 만해비석이 1970년 3월에 건립됨의 영향에서 시작되었다. 즉 1970년 6월, 대불청이 창립 50주년의 기념 강연을 ‘만해선사 추모의 밤’으로 하였던 사실에서 계승인식의 단면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본격적인 추진은 1979년의 대불청 집행부(회장, 선진규)의 대불청 ‘뿌리찾기’ 사업에서 비롯되었다. 당시 대불청 회장인 선진규는 대불청의 역사 찾기 차원에서 만해 한용운의 계승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였다. 그 당시에는 만해 탄신 100주년 기념사업이 활발하게 준비되던 시점이었다. 대불청의 만해 계승사업은 여타 단체보다도 뚜렷한 성과를 거두었다. 그 이후에도 대불청은 만해 사업을 다양하게 추진해 왔다. 그래서 대불청의 정체성 및 역사에서 만해 한용운을 결코 제외할 수 없다.

이런 배경에서 이 글에서는 1970년대의 대불청 만해사업의 추진 경과 및 성격을 관련 자료에 근거하여 정리하고자 한다.⁵⁾ 지금껏 8·15해방 이후의 대불청 연구는 전무하였다. 그래서 이러한 연고로 필자의

3) 김광식, 「조선불교청년총동맹과 만당」, 『한국근대불교사연구』, 민족사, 1996. 김성연, 「조선불교청년총동맹의 성립과 활동」, 『사학연구』 132, 2018.

4) 대불청 홈페이지, 대불청의 소개란에 “청년신도들을 중심으로 조직된 불교단체 대한불교청년회입니다.”라고 나온다. 그리고 그 내용의 말미에 “일제강점시기인 1920년 6월 만해 한용운 스님을 위시로하는 청년, 스님이 중심이 되어 ‘불교를 통한 민족의 각성, 조선의 독립’을 기치로 하여 ‘조선불교청년회’를 창립하여 민족각성과 독립운동을 해왔습니다. 광복 이후에는 조직을 재정립하여 60년대 ‘대한불교청년회’로 당시 문화공보부에 불교신행단체로 등록 활동해오다 1998년 사단법인이 되었습니다. 대한불교청년회는 전국 14개 지구에 250여개의 청년 단체를 조직하여 ‘참다운 인간’, ‘올바른 사회’, ‘인류구제’의 원력을 세워 활동하고 있습니다.”라고 서술하였다. 그리고 만해스님의 소개, 연보 사진 및 자료 란을 두고 있다.

5) 필자는 『만해 한용운의 기억과 계승』(인복스, 2022)에 수록한 「만해사상 계승을 실천한 단체」에서 대한불교청년회를 간략히 다루었다.

연구는 거칠고, 미진한 측면이 적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만해정신 계승의 조명 차원에서 연구를 시도하였음을 개진한다. 대불청의 1980년대 이후 만해사업은 별도로 고찰해야 할 정도로 내용이 많아 필자의 연구 과제로 남긴다. 이 글이 대불청의 역사 정리 뿐만 아니라 만해정신의 계승에 대한 이해에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II. 대한불교청년회와 만해 한용운

대불청 역사에서 만해 한용운은 중심적인 주제이다. 그러나 대불청은 만해 한용운을 대불청의 역사에 1979년부터 본격적으로 포함시켰다. 이는 대불청 뿌리찾기 사업의 산물이었다. 그 결과 만해정신은 대불청 역사의 핵심 주제가 되었다. 그러면 여기에서 1990년대의 대불청 역사에서 만해가 어떻게 수용되었고, 인식되었는가를 제시한다. 1990년에 취임한 배영진 16대 회장⁶⁾ 시절과 1995년에 취임한 이상번 18대 회장 시절의 관련 문건을 살펴 보자. 우선 대불청 역사 자료의 문건(1991년)을 제시한다.

우리 역사의 시작은 1920년에 창립한 조선불교청년회이다.

당시 우리나라는 일제의 식민지 지배가 더 한층 강화되고, 여기에 대하여 3·1민족 독립운동을 거치면서 전민족적인 항일 민족해방 운동이 본격화되는 시기이다. 그리고 불교 내적으로는 일제의 조선불교 예속화 정책이 완비되어 조선의 모든 사찰이 ‘사찰령’의 법률적 지배를 받고, 일본불교와 야합한 매불·매국 승려들이 불교계를 장악해 나가는 시기이기도 하다. 이속에서 창립한 조선불교청년회는 만해스님을 총재로 선출하고 그 분의 지도를 받으며 ‘불교를 통한 민족의 각성·조국의 독립’이라는 서원을 성취하기

6) 배영진이 『불교신문』에 자신의 불교의 인연, 대불청 인연을 기고한 것이 참고된다. 『불교신문』의 「남기고 싶은 이야기」이다. 2009.12.5.(1회), 12.12(2회), 12.19(3회), 12.26(4회) 등이다.

위하여 정진을 시작한다.⁷⁾

이 때문에 만해스님의 사상과 실천을 오늘의 역사 속에서 구현하는 것이 오늘날 불자들의 사명이며, 우리 대한불청은 이를 위하여 정진하는 조직이다.

지금까지 전국 불교청년의 조직인 우리 대한불교청년회의 목적인 3대 강령과 3대 강령의 사상적 근거로서의 불교사상 및 만해스님의 사상을 간단하게 알아 보았다.⁸⁾

우리의 뿌리인 만해스님의 불교유신과 민족 자주이념을 철저히 오늘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 특히 만해스님의 실천이념은 우리의 사상적·조직적 뿌리일 뿐만 아니라 오늘의 불교와 민족현실이 당시 상황과 크게 달라진 부분이 없기에 스님의 삶과 사상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오늘의 우리가 수행해야 할 신앙적·역사적 사명에 가장 큰 무기를 얻을 수 있다.⁹⁾

이렇듯이 대불청은 만해의 지도를 받으며 활동한 역사를 강조하고, 그를 대불청의 출발로 보고 있었다. 즉 만해정신을 대불청의 이념적 근원으로 인식하고 그 계승을 천명하였다.

그러면서 만해가 참여한 신간회 활동, 1930년대 초기 조선불교청년총동맹 및 만당의 활동도 대불청의 역사로 이해하였다.¹⁰⁾ 해방 이후인 1948년 11월 11일 대한불교청년회가 재건되고 초대 회장에 김법린(만당 당원)이¹¹⁾ 취임하였다고 서술하였다. 그의 뒤를 이어 2대 회장 유진학(1952), 3대 회장 반재현(1954), 4대 회장 백원준(1957), 5대 회장 장경순

7) 대한불교청년회, 『대한불교청년회, 우리는 누구인가? - 역사와 조직, 이념과 역할에 대하여』, 1991, p.15.

8) 위의 자료, p.27.

9) 위의 자료, pp.36-37.

10) 위의 자료, pp.44-45, 연혁.

11) 김광식, 「만해와 김법린」, 『우리가 만난 한용운』, 참글세상, 2011.

(1959) 등이 회장을 담당하였다고 한다.¹²⁾ 그러나 해방공간의 대불청 활동은 미약하였다. 그 후 불교정화운동이 전개되면서 대불청 활동도 본격화 되었다.¹³⁾ 통합종단인 조계종이 출범하고 불교재산관리법이 제정되던 1962년 6월 20일에 대한불교청년회로 종교단체 등록을 하였다.¹⁴⁾ 1963년에 6대 회장으로 김법린이 재선되었으나, 그가 별세하여 1965년 1월에 7대 회장으로 김판석이 선출되었다.¹⁵⁾ 김판석은 8대 회장까지 역임하였는데, 그의 회장 시절인 1970년 3월, 만해 비석이 건립되자 만해에 대한 계승의식이 시작되었다.¹⁶⁾

한편 1995년에 취임한 이상변 회장 시절에 나온 문건(『불교중흥과 청년불교』, 1995)에도 위와 같은 내용이 거의 유사하게 반영되었다. 그러면서 만해사상 계승의 내용은 더욱더 강화되었다. 여기에서 그 문건을 제시하겠다.

우리 조직의 역사적 뿌리는 근세에 불교혁신과 민족 자주사상으로 불교와 민족을 구원하고자 하신 만해스님과 스님께서 1920년에 건설한 조선불교청년회이다.

만해스님은 암울한 일본제국주의의 식민지 아래에서 관념과 어용으로 변질된 한국불교를 현실의 역사속에서 사회 구현의 사상으로 구체화하고 실천하시었다. … 중략 … 이렇게 스님은 불교와 민족의 문제를 당신의 책임으로 받아들여 스스로 보살의 길을 걸으시었다. 그리고 만해스님의 사상이 오늘의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는 현대사 속의 한국불교가 정권에 대한 예속, 사회현실과 대중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봉건적인 구조 보존과 초월적이고 관념적인 신앙 형태 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며, 민족의 경우 일본 제국주의로부터의 해방이 자주 독립국가의 건설로 완전하게 이행되지

12) 대한불교청년회, 『대한불교청년회, 우리는 누구인가?』, 1991, pp.17-18.

13) 『대한불교』 1970.6.28, p.1, 「사설 : 불청운동의 회고와 전망」.

14) 대불청(회장, 이상대)은 1998년 6월 8일, 문화관광부로부터 ‘사단법인 대한불교청년회’의 인가를 받았다. 대불청 홈페이지 참조.

15) 대한불교청년회 홈페이지의 역사.

16) 『주간불교』 1991.6.20, 「대한불교청년회 71년사」.

못하고 또 다른 외세에 의한 민족 분단을 가져오고 그것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만해스님의 사상과 실천을 오늘의 역사 속에서 구현하는 것이 오늘날 불자들의 사명이며, 우리 대한불청은 이를 위하여 정진하는 조직이다.¹⁷⁾

이처럼 1990년대 중반에는 만해정신이 대불청의 역사, 이념으로 확고하게 구축되었다.¹⁸⁾ 이상변 회장 체제에서는 만해 기념사업을 도출하고, 추진하였음이 주목된다. 이상변은 만해의 가르침을 접한 통도사 경봉으로부터 만해정신을 전달받았다.¹⁹⁾ 이런 인연이 있었기에 그는 대불청 회장이 되자 만해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즉 그가 추진한 사업을 전하는 문건에는 기념사업의 개요, 목적, 추진방안(만해스님 기념사업 추진의 구성), 기념사업(묘소 이전, 심우장 성역화, 독립기념관 어록비, 만해회관 건립, 만해대학 추진) 현황, 추진 일정이 나온다.²⁰⁾ 이를 보면 그 추진 기획내용이 치밀하였음을 엿볼 수 있다. 여기에서 필자는 이상변 회장 집행부의 대불청에서 추진한 만해정신의 계승, 실천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였는가의 분석이 필요함을 개진한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어떻게 하여 이런 정체성(만해 이념) 정립에 이르렀는가를 역사적 맥락에서 살피는 것이 우선되어야 함을 인식한다.

17) 대한불교청년회, 『불교중흥과 청년불교 : 21세기를 향한 불교비전 - 역사·조직·이념·역할·21세기 전망』, 1995, pp.30-32.

18) 그런데 일시적으로 3·1운동의 민족대표인 만해와 백용성을 동시에 추모하는 분위기도 있었다. 『법보신문』 1992.2.24, p.11, 「용성·만해 계승실천 주간 맞아」. 이는 백용성 문도인 도문스님(죽림정사 조실)의 조언을 수용한 결과이다. 이상변, 필자에게 증언(2023.3.19).

19) 『삼소굴 법향』, 통도사 극락암, 2020, pp.443-447.

20) 위의 『불교중흥과 청년불교 : 21세기를 향한 불교비전』, pp.58-63. 이상변은 만해 백일장을 기존 운문(시, 시조)에서 산문 분야를 포함, 확대시켰다. 이는 대입에 논술이 부각 되는 현실에 부합하기 위함이었다. 이는 필자와 이상변의 전화 인터뷰(2023.3.19) 내용임.

Ⅲ. 1960년대 대한불교청년회의 노선

대불청은 1960년 2월, 재발족의 형식으로 재건되었다.²¹⁾ 대불청 1960년대의 노선은 조계종지, 정화운동, 반공운동 등을 내세운 것에서 볼 때에 조계종단과의 친연성을 갖고 있었다.²²⁾ 그러나 단체로서의 본격적인 활동은 1962년 6월 20일, 문공부에 종교 단체로 등록을 한 이후였을 것이다. 이때부터 지금의 단체명인 대한불교청년회로 활동하기 시작하였다. 그 당시 조계종단은 그 이전 비구승과 대처승 간의 갈등에서 나온 불교정화운동을 마무리하고, 대한불교조계종으로 재정립하여 1962년 4월에 새롭게 출발하였다.

이런 구도에 대불청도 합류하였다. 1962년 9월 29일, 대불청은 조계사에서 제1회 전국대의원대회를 개최하였다.²³⁾ 그 대회에서는 헌장을 제정하여 통과시키고, 대불청의 간부진을 선출하였다. 총재 종정스님(효봉), 중앙의회 의장 조명기, 집행위원회 회장²⁴⁾ 김법린, 상임위원 목철우(목정배)·김지건·박동기·황이선·이호식·박완일, 고문으로는 황의돈·전진한·전관용·이청담·정두석 등이 선출되었다.²⁵⁾ 그런데 대회의 보도기사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어 주목된다.

대의원 대회에서는 진지한 토의 끝에 한국불교의 정통인 조계종지를 기

21) 『대한불교』 1960.3.1, p.1, 「재발족을 본 불교청년회」.

22) 『대한불교』 1963.4.1, p.5, 「대불청 연구 발표」에서도 청년회 창립 3주년을 맞아 연구 발표회를 가졌다고 나온다.

23) 『대한불교』 1962.10.1, p.2, 「대한불교청년회 - 전국대의원대회를 개최」.

24) 김법린을 6대회장으로 보기도 한다. 배영진 대불청이 작성한 연혁. 그런데 『대한불교』 1965년 기사에는 김판석을 6대 회장으로 칭했다. 김법린은 회장 수행 중, 동국대 총장을 역임하다가 별세하였다. 이런 점이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이는 대불청에서 다루어야 할 문제이다. 김순석, 『김법린』, 역사공간, 2018, pp.158-160.

25) 중앙의회 부의장은 김봉새, 손석우이었다. 그리고 집행위원회 부회장은 유상중, 정종채이었다.

본으로 한 전문 41조의 헌장을 통과시켰으며 바로 이어 총재를 비롯한 역원 선거에 들어갔다.²⁶⁾

대불청의 정체성은 조계종지를 기본으로 한 헌장이 통과되었던 것이다. 요컨대 만해정신의 계승은 대불청에서 찾아볼 수 없었다. 이런 성격은 1963년 대불청의 중앙회장 취임식에서도 지속되었다. 1963년 4월 7일 조계사에서 대불청 중앙회장의 취임식이 있었다. 총재는 서경보, 회장은 장형순, 부회장은 김우경과 박완일이었다. 흥미로운 것은 그를 보도한 기사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온다.

이날 취임식을 가진 장형순 신임 회장은 그의 취임사에서 우리 문화의 원천인 花郎精神을 잊지 않는 이 나라의 젊은 불교도들에게 무수한 중생을 제도하겠다는 의욕과 그 실천에 전력할 것이며 이 나라를 불국토로 건설하는데 선봉의 역군이 될 것을 다짐하였다.²⁷⁾

즉 대불청 회장의 취임사에 花郎精神이 나왔다. 즉 여기에서도 만해정신의 계승은 없었다.²⁸⁾ 1964년 9월 27일, 조계사에서 열린 대불청 제3차 대의원 대회(의장, 조명기)에서도 이런 성격은 지속되었다. 대의원 대회에서는 집행부를 새롭게 선출하였는데 회장은 조병일, 부회장은 손창대와 박완일이었다. 이때 선출된 조병일 회장은 취임사에서 다음과 같이 발언을 하였다.

이 대의원대회에서 선출된 신임 조병일 회장은 이날 취임사에서 청년회

26) 위의 『대한불교』 1962.10.1와 같음.

27) 『대한불교』 1963.5.1, p.1, 「불교청년회 회장 취임식, 총재에 서경보 회장에 장형순」. 이 기사에 회장 약력이 나온다. 그는 동양대학 졸업, 육군대학 졸업, 농림부 장관을 역임했다.

28) 1963년의 활동은 『대한불교』 1963.12.1, p.4. 「대한불교청년회」에서 찾을 수 있다.

의 육성을 위해 종단 산하 각급 단체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하고 ① 신앙의 생활화 및 ② 현 사회의 생활 양식에 부합할 수 있는 종교의식 개선과 ③ 불교의 국제적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장차 청년회는 교계의 어려운 문제를 도맡아 이론보다는 실천을 위주로 삼는 단체로 발전되어야 한다고 역설하여 많은 기대를 자아내게 하였다.²⁹⁾

여기에서도 만해정신의 언급은 전혀 없었다. 1966년 10월, 제6차 대의원 대회에서는 대불청이 추진할 혁신 7개항을 발표하였다.³⁰⁾ 아래와 같은 혁신 내용에서도 만해 사업은 없었다.

- ① 佛紀의 2500년대 사용, 佛旗의 세계적 통일
- ② 종단 및 불교도들의 離世間的 遺習 폐풍을 배격, 적극적 현실 참여
- ③ 역경, 포교 활동의 근대화를 기하기 위하여 역경의 현대적 語句 사용과 승려 이외에 일반 불학자의 포교사 제도를 실시할 것이며 불교 미술, 불교 음악의 현대화를 기함
- ④ 일부 재벌들이 관여하여 전국 사찰에서 당하고 있는 聖寶(문화재) 도굴 사건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대책을 촉구
- ⑤ 종교적 신앙의 차별과 의식의 장벽을 허물고, 각 종교 종파 간의 청년 세력은 상호 문호를 개방하여 기구 설치를 제휴
- ⑥ 세계불교청년 기구의 설치를 제의하고 이를 추진
- ⑦ 軍宗僧制의 조속한 실시를 촉구하며, 사관학교 법당 건립을 촉구

1965년 10월 3일에 대불청 6대 회장으로 선출된³¹⁾ 김판석 회장의 집행부가 위와 같이 대불청을 혁신하려고 노력은 하였다. 그러나 그때까지도 만해사업에 대한 관심은 없었다. 지금껏 살핀 바와 같이 1960년대의 대불청의 사업 및 역사에서 만해는 찾을 수 없었다.

29) 『대한불교』 1964.10.4, p.3, 「대한불교청년회, 제3차 전국대의원대회」.

30) 『대한불교』 1966.10.9, p.3, 「활기 띠는 佛靑運動」.

31) 『대한불교』 1965.10.10, p.1, 「대불청 회장단 취임성황」.

『대한불교』 1965.10.3, p.1, 「6대 회장 김판석 피선」.

IV. 1970년대 대한불교청년회의 노선

1960년대의 대불청에는 만해인식 및 만해노선이 거의 없었다. 그런데 1970년 6월부터 대불청은 만해정신의 계승을 사업으로 처음으로 내세웠다. 1970년의 대불청 강령은 다음과 같다. 즉 ① 우리는 부처님의 正覺을 이루어 참다운 인간이 된다. ② 우리는 부처님의 正法을 받들어 올바른 사회를 만든다. ④ 우리는 부처님의 正道를 지켜 모든 인류를 건진다. 이 강령은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이 강령을 구현하기 위한 노선 및 사업에 만해정신이 어떻게 접목되었는가의 문제가 주목된다. 1970년대 초반에 만해사업이 처음으로 등장하였다. 이는 1970년 3월 1일을 기해 탑골공원에 세워진 만해 비석의 영향에서 말미암은 것으로 보인다.³²⁾ 만해비석은 1960년대에 시작된 사회에서의 민족주의 흐름이 불교계에서 구현된 산물이었다.³³⁾ 이런 기본 흐름에서 대불청 회원들은 대표적인 불교 민족주의자로 볼 수 있는 만해 한용운을 적극적으로 인식하였다. 이를 엿볼 수 있는 당시 대불청의 회보지 『佛靑』 2호 (1970.6.10)에³⁴⁾ 기고된 글, 「半世紀를 맞이하는 佛靑 - 만해 한용운 선사를 추모하며」를 제시한다.

50년 前 6월 20일, 萬海 韓龍雲 선사는 일제가 강제로 시행하는 사찰령과 그에 따른 일부 주지들의 횡포를 막기 위하여 청년승려를 함께 모아 「朝鮮佛敎青年會」를 창설하였다. 그때는 3·1운동이 일어난 지 겨우 1년 남짓 되었기 때문에 당시 불교계를 대표하여 33인의 한 분으로 서명한 만해선사는 언제나 일제의 요시찰 인물로서 항상 감시를 받고있는 몸이었다. 하지만 쇠퇴할대로 쇠퇴하여졌고 거의 종잡을 수 없는 무질서의 상황에서

32) 『대한불교』 1970.3.1, p.1, 「龍雲 萬海 대선사碑 건립 - 3·1절 기해 파고다공원에」. 이 기사에는 비석 사진도 함께 보도되었다.

33) 김광식, 「한용운 추모사업과 비석건립」, 『만해 한용운의 기억과 계승』, 인북스, 2022.

34) 발행인은 김관석, 편집인은 김순자, 주간은 목철우 이었다.

만해선사는 곧은 정신은 일제의 요시찰이란 감시가 그리 중요한 사실도 아니었던 것이다.

만해선사에 대한 일화는 너무나 많고 또 그것은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져 있기 때문에 거의 모르는 사람이 없긴 하나 특히 그분의 民族意識과 곳곳한 節概, 또한 굽힐 줄 모르는 正義感은 오늘의 靑年들에게 언제나 새로운 힘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많은 逸話들 중에서 3·1운동을 전후한 얘기 몇 가지만 추려보면 … 중략 … 더 열거하자면 한없이 많으나 이상 몇 가지에서 보더라도 우리 청년은 만해선사의 기개에서 무엇을 배워야 할 것인가는 뻔하다. 해서 佛敎靑年會에서는 6월 20일 만해선사를 추모하고 그분의 뜻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기념 강연회를 갖는다. 부디 우리 청년들도 鄭爲堂先生이 「한국 청년은 萬海를 배우라」고 하신 말씀을 오래 기억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대불청에서는 청년들이 만해를 배워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런 인식은 대불청의 김판석 집행부가³⁵⁾ 만해정신의 계승 사업에 나서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즉 대불청 창립 50주년 행사를 만해 추모 기념 강연회로 추진한 것이다. 이런 배경에서 대불청은 만해를 추모하는 강연회를 6월 20일에 개최하였다. 대불청의 소식지인 『佛靑』 2호에 광고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창립 50주년 기념 대 강연회
- 만해 한용운 선사 추모의 밤 -

연사 : 양주동 박사 만해의 생애와 佛靑운동
서정주 교수 만해의 문학과 意志
김관호 선생 만해의 일화

35) 당시 그 집행부의 간부진은 다음과 같다. 회장 김판석, 부회장 박완일·유상중, 사무국장 이건호, 총무부장 김항배, 조직부장 박동기, 교화부장 윤영흠, 홍보부장 목철우, 체육부장 장병욱, 사업부장 임정진, 국제부장 고익진, 부녀부장 김순원, 의장 김순자, 부의장 이현중·김도완·권연구이다.

박완일 선생 佛靑운동의 회고와 사명

일시 : 1970년 6월 20일(토) P.M 6.00

장소 : 교육회관 대강당

주최 : 대한불교청년회

후원 :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대한불교 전국신도회

위의 광고에 나오듯이 대불청은 1970년 6월을 기점으로 만해정신을 대불청의 이념으로 접목하기 시작하였다. 그 전제하에 창립 50주년을 기념하는 강연회를 만해를 소재로 하였다.³⁶⁾ 1970년 5월 10일에 펴낸 『佛靑』 1호에 기고된 대불청 회장 김판석의 「佛靑의 使命」에서는 대불청의 정체성을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佛靑운동은 신라 花郎精神을 계승함이며, 이조 義僧軍의 애국정신을 함양하는 것이다. 자연이 주는 숭고한 진리가 신라청년의 가슴에 핏불이 되었고 불교의 무아사상은 승군의 정의감을 고취한 길이다. 화랑의 슬기와 승병의 용기가 오늘날 새롭게 조화를 이룩하여 한국불교 중흥의 날카로운 사자분신의 용맹을 길러야 할 것이다.

이렇게 1970년 5월까지의 花郎精神의 계승과 조선시대 임진왜란 당시 義僧軍의 애국정신 함양을 대불청의 이념으로 인식하였다. 그런데 이런 이념이 1970년 6월을 기점으로 만해정신으로 대전환이 시작되었다. 이런 전환은 위에서 언급한 만해비석의 건립이 촉진제로 작용하였을 것이다. 대불청 내부에서의 그 전환은 어떤 계기로 인식되고 결정하였는가에 대해서는 증언 발굴이 요청된다. 대불청의 만해 강연 활동은 『조선일보』(1970.6.23)와³⁷⁾ 조계종단의 기관지인 『대한불교』(1970.6.28)에

36) 『법륜』 25호(1970.8), p.121, 「대한불교청년회 창립50주년 기념 강연회 개회, 교육회관서」. 『경향신문』 1970.6.24, p.5, 「50돌 맞은 佛敎청년회」.

크게 보도되었다.³⁸⁾ 그 보도를 하였던 같은 날의 『대한불교』의 사설에서도 「불청운동의 회고와 전망」이라는 주제로 대불청의 역사와 이념을 정리하였다.

그러나 1970년 중반의 대불청 만해 사업은 일시적이었다. 그 이후에 만해사업의 지속은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1974년에 출범한 김지건의 회장 시절에도 불교사상의 보편성은 강조되었지만³⁹⁾ 만해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V. 대한불교청년회의 뿌리 찾기

대불청의 만해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 인물은 대불청 10대 회장으로 활동한 선진규이었다. 선진규(1934~2020)는 동국대 출신으로 재가 불교운동의 지도자이었다. 그는 경남 김해에 봉화산 정토원을 설립하여 농민운동, 청소년운동, 불교운동(염불) 등을 추진하였으며 조계종 전국 신도회장을 역임한 포교사이었다.⁴⁰⁾ 이와 같은 행보를 갔던 그는 1978년 9월 23일, 선학원에서 개최된 11차 대의원대회에서 회장으로 선출되었다.⁴¹⁾ 선진규 이전의 대불청은 만해정신 계승을 표방한 활동이 미약

37) 『조선일보』 1970.6.23, p.5. 「**仏教 現代化의 革新策** 등 제시 : 불청 50주년에 되새겨진 만해」.

38) 『대한불교』 1970.6.28, p.1, 「**萬海추모의 밤 盛況 - 佛靑 창립50주년 記念 강연**」. 이 보도기사 p.3에서는 「**人間萬海 : 追慕의 밤 講演抄**」라는 제목으로 3인의 강연 요지를 보도하였다.

39) 『대한불교』 1974.11.10, p.3, 「**불교청년회, 과감한 체질개선**」. 김지건은 부처님의 正法, 正覺, 正道를 청년들이 수용해야 한다고 발언하였다. 그리고 민족, 세계, 불교적인 참회의 보편성을 강조하는 발언을 하였다.

40) 선진규, 「**새천년 정토신행의 포교방향**」, 『정토학연구』 2, 1999. 추후, 그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가 요청된다.

41) 『대한불교』 1978.10.1, p.1, 「**憲章개선, 任員陣개편**」. 그는 54표, 박동기는 44표를 얻었다.

하였다. 당시 지방 지회에서 대불청 변화를 바랐던 추세에 힘입어서 선진규는 회장에 당선되었다. 요컨대 선진규 회장은 대불청을 변화, 발전을 주도할 책임에 직면하였다. 그래서 그는 우선 11월 8일의 회의에서 이사진 및 집행부를 대대적으로 개편하였다. 그리고 사무실을 조계사 경내의 불교 중앙회관(2층)에 두고, 서울지부의 불청을 직할 지부로 만들었다. 이렇게 대불청의 조직, 기반을 정비한 선진규는 대불청의 이념 및 노선을 검토하였다. 그는 대불청의 노선에 만해사업을 포함시켰다. 이에 대한 선진규의 회고를 참고하자.

이렇게 사무실이 해결되어 급히 간부회의를 소집했다. 포교사실 소회의실에 임원 10여 명이 모여 이날 회의에서 처음으로 청년회의 진로를 다음과 같이 결의했다.

1. 일제하 불타사상에 근거하여 만해스님을 중심으로 일으킨 독립운동의 결사체인 청년회의 사상과 이념의 뿌리를 찾는 사업을 한다.
2. 청년회의 생명력은 조직에 있음으로 전국적으로 조직을 활성화한다.
3. 1979년은 만해스님 탄신 100주년 3.1운동 60주년이므로 대대적인 기념 행사를 벌여 청년의 기상을 높인다.⁴²⁾

선진규는 대불청의 사상과 이념의 뿌리를 만해의 역사에서 찾는 사업을 결정하였다. 그리고 그는 1년 후인 1979년이 만해 탄신 100주년 및 3·1운동 60주년이라는 것을 고려하여 대대적인 기념행사를 추진하는 방향을 수립하였다. 대불청이 이렇게 만해사업을 설정한 것은 그해 7월 경에 만해 기념사업을 불교계에서 해야 한다는 당위로 기념사업회가 발족해야 한다는 분위기에⁴³⁾ 힘입은 측면도 있었을 것이다. 또한 선진규는 12년 전인 1967년 5월 28일, 불교농민원이라는 단체를 만들어 자신이 불교운동을 추진하는 현장인 김해 봉화산에 만해의 석상을 세우고 제막식을 한 경험도 갖고 있었다.⁴⁴⁾ 그때의 제막식 행사에 중단

42) 『불교신문』 2008.7.23, 「남기고 싶은 이야기 : 선진규 ①」.

43) 『대한불교』 1978.7.16, p.2, 「사설 : 만해스님 기념사업」.

간부급 승려, 다수의 저명인사들이 동참하는 것을 보았다.⁴⁵⁾ 이런 경험 이 만해 사업을 추진해야 하겠다는 결단에 작용하였다.

대불청의 이와 같은 만해사업은 대불청 뿌리찾기 사업으로 구체화 되었다. 이를 알 수 있는 것은 1979년 1월의 『대한불교』 보도기사이다. 불교계의 만해 탄생 100주년을 보도한 내용에 다음과 같이 나온다.

여기에 창립과 함께 초대 회장을 역임했던 대한불교청년회가 역시 기념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 중략 … 한편 大韓佛靑은 지난 6일 오후 종로 2가 소재 음식점 일억조에서 이사 및 간부 50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이사 간부 확대회의를 갖고 同會 초대회장인 만해 한용운 선사의 탄신 1백주년을 맞아 뜻있는 기념 행사를 개최기로 합의했다. 이어 집행부는 9일 오후 7시 용산 소재 음식점 미정에서 모임을 갖고 현 집행부를 「만해 탄신 백주년 기념 불청 준비위원회」로 전환, 기념 행사를 범불교적으로 추진 「3·1절」을 전후해서 서울에서 기념 세미나 지방에서는 지부 연합회가 주관하여 기념 강연회를 개최기로 했다. 또한 3월 1일에는 과고다공원에서 중·고·대학 일반이 참가한 가운데 「제1회 만해상 전국 백일장」을 개최기로 했다.⁴⁶⁾

위의 기사에 나오듯 대불청은 1979년 1월 6일, 만해 탄신 100주년 기념행사를 철저하게 준비하였다. 이는 대불청의 역사 찾기 차원에서 결정한 것이다. 한편 16~17대 대불청 회장을 역임한 배영진은 그가 전해

44) 그는 만해 석상(인조대리석)을 만들어 1967년 5월 28일, 경남 김해의 봉화산에서 제막식을 거행하였다. 그러나 이 석상은 이교도(개신교)의 손에 의해 그해 가을에 손상을 입어 철거하였다고 선진규는 필자에게 증언했다. 『동아일보』 1967.5.23. p.7, 「弘濟四溟大師·萬海韓龍雲師 聖像 除幕式 안내」. 『대한불교』 1967.6.4, p.1, 「萬海禪師像 등 除幕」. 선진규가 제작한 석상은 『대한불교』 1967.5.7, p.3, 「사명대사 한용운선생 동상세워」에 나온다.

45) 『대한불교』 1966.5.21, p.3, 「광고 : 사명대사 한용운師 聖像 除幕式 안내」.

46) 『대한불교』 1979.1.21, p.1, 「교계 대대적인 기념사업 계획 - 만해선사 탄신 1백주년 맞아」.

들은 내용을 다음과 같이 회고하였다.

3·1절 60주년 행사에 불교계의 대국민을 향한 행사를 구상하던 대한불교청년회 집행부는 여러 논의를 거쳐서 초대 회장으로 추대되신 만해 한용운 대사님에 대한 행사를 추진하기로 하고, 당시 대사님의 따님을 면담하고, 이어서 대사님을 모셨던 고 김관호 선생님을 만나서 그간의 대사님 생존시의 활동 사항을 듣고, 1회성 단순 추모 및 강연회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행사를 하자는 의견이 모아져, 만해 한용운 대사님을 상징하는 “전국 만해 백일장”으로 정하고, 행사를 준비하면서 대사님의 따님으로부터 대사님이 소지하셨던 염주(단주)를 전수 받았고⁴⁷⁾

위의 내용은 배영진이 서울불교청년회에 입회(1979.8.31)하여 대불청 활동을 하면서 파악한 것이다. 배영진은 대불청과 사무실을 함께 사용한 대불청 직할단체인 서울불교청년회의 실무를 담당하면서 공·사석에서 그 당시 역사를 듣게 되었다. 또한 대불청 중앙회 임원(조직 차장, 사무 차장 등)으로 실무 담당을 하면서 알게 된 내용이 많았다.

하여튼 만해 행사로 기획된 것은 백일장, 세미나, 강연회 등이었다. 이와 같은 사업은 『대한불교』의 사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즉 대불청은 「만해의 해」로 정하고, 만해공원(가칭) 및 만해 문화상의 설립, 기념 학술세미나 및 백일장 추진 등을 노력하고 있다는 내용이 나온다.⁴⁸⁾그러면 위에서 나온 관련 행사를 순서대로 살펴보자.

1979년 2월 18일 만해 강연회가 개최된 그 날 오전, 대불청의 관계자(스님, 신도, 회원 등) 200여 명은 망우리 공동묘지를 참배하였다.⁴⁹⁾ 그리고 만해 묘소 이장을 포함한 중요한 내용을 결의하였다.

47) 배영진 자필회고, 「대한불교 청년회 및 청년불자들이 만해 한용운 정신을 알고 배우고 전승하게 된 계기」. 이 회고는 필자의 요청에 의해 작성된 (2023.5.5) 문건이다.

48) 『대한불교』 1979.2.25, p.2, 「사설 : 만해 기념사업」.

49) 『경향신문』 1979.2.19, p.7, 「만해 한용운선생 탄신 백돛 추모제」.

이보다 앞서 오전에는 스님 및 신도와 회원 등 2백여 명은 자주독립정신, 민족교육사상, 자유문학사상, 불교유신사상으로 잊혀져 가는 민족의 얼을 최후의 일각까지 붙들고 버티셨던 정열과 의지와 신념과 절조의 정신과 사상을 깊이 새겨 실천할 것을 다짐하면서 만해선사의 묘소이장을 위하여 불교인들의 여망을 하나로 집대성시키는데 불교청년들이 앞장 선다.⁵⁰⁾

위와 같은 만해정신 구현을 위한 6개 항의 결의문을 발표하였다. 그 결의문 내용은 묘소 이전은 만해공원으로, 만해공원의 설치는 정부에 요청, 만해 묘소에 안내판을 설치하도록 서울시에 건의, 만해정신을 구현하는 선도역할은 대불청이 담당한다는 내용이었다.

학술세미나는 백일장이 개최되기 이전인 2월 18일 오후에 조계사 경내의 불교중앙회관에서 열렸다. 교계 인사, 스님, 신도, 대불청 지회장 등 1천여 명이 참가하였다. 80년대와 만해정신이라는 대주제로 열린 세미나의 세부 주제는 다음과 같다.

- 이기영(동국대) : 의의와 전망
- 김동리(중앙대) : 만해의 본성
- 이규호(연세대) : 만해의 교육철학
- 이재창(동국대) : 만해의 불교 유신론
- 이관구(연론인) : 만해의 자주정신과 역사의식⁵¹⁾

이제부터는 3월 1일에 개최된 백일장에 대한 보도기사를 제시한다. 백일장은 현재까지도 계승되고 있고, 있는 대불청의 대표적인 사업이다.

대한불교청년회(회장, 선진규)는 기미년 3·1운동 60돐과 만해 한용운스님 탄신 1백주년을 맞아 그 기념 행사로 전국 중·고·대학생 및 일반인이 참가하는 白日場과 「1980년대와 만해정신」을 주제로 한 기념 학술 세미나

50) 『대한불교』 1979.2.25, p.7, 「한용운 선사 탄신 백주년 기념 세미나 개최」.

51) 『대한불교』 1979.2.25, p.5, 「대한불청 만해사상 세미나」.

를 개최한다.

한국 역사상 일찍이 그 예를 볼 수 없을 정도로 위대했던 佛敎人이자 獨立運動가 文學者였던 만해 한용운스님의 업적을 오늘에 선양하고 다시 오늘을 진단하고 내일을 향하는 진로를 모색하고자 마련한 이번 기념 행사에는 각계 인사가 참가, 그 의의를 더하게 하고 있다. 만해 한용운 스님은 대한 불교청년회의 전신인 朝鮮佛靑의 초대 회장이었다.⁵²⁾

위에서 나온 백일장의 개요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백일장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진행, 성격 등을 알 수 있다.

일시 : 3월 1일 오전 11시

장소 : 파고다 공원

시제 : 3·1절 60돐과 만해정신을 내용

심사위원 : 본심 심사위원장 이원섭(위원 : 이인석, 김어수, 황명, 홍윤숙, 박희선)

예심 심사위원장 장 호(위원 : 송혁, 성춘복, 이성교, 강계순, 오학영)

시상 :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및 일반부로 나누어 시상

만해상(장원 1명 10만원, 차상 1명 5만원, 차하 1명 2만원, 입선 10명 등)⁵³⁾

이상과 같은 백일장(시부문)은 754명이 참가한 가운데 뜨거운 반응 속에 마쳤다. 조계종 총무원, 대한불교신문사, 한국문인협회, 만해기념사업회 등의 후원 속에 대회는 진행되었다.⁵⁴⁾ 백일장의 준비는 선진규가 당시 문인협회 부이사장이었던 이원섭을 찾아가서 부탁한 것이 작

52) 『대한불교』 1979.2.4, p.1, 「기념 백일장·학술세미나」.

53) 『대한불교』 1979.2.25, p.3, 「광고 : 제1회 만해상 전국 백일장 시행 계획」. 『대한불교』 1979.3.11, p.1, 「제1회 만해상 백일장 성료」.

54) 최고상은 윤재웅(용산고)의 「소리」가 선정되었다. 윤재웅은 동국대 국어교육과 교수, 만해연구소 소장을 역임하고 현재 동국대 총장으로 재직 중이다.

용하였다. 이원섭은 동국대 전신인 혜화전문 출신으로 만해와도 인연이 있었던⁵⁵⁾ 시인이었다.⁵⁶⁾

그런데 대불청 회장인 선진규는 2월 18일의 만해묘소 탐방과 세미나 개최 이전에 만해 묘소를 찾았다. 이에 대해서 그는 다음과 같이 회고하였다.

그동안 꼭 한번 묘소를 찾아 뵙고 싶었는데, 회장이 된 후 그 숙제를 풀어야 하겠다고 마음 먹었다. … 중략 … 나를 반갑게 맞아준 부부(필자 주 : 만해 딸인 한영숙, 정택근)로부터 망우리 묘소 약도를 받고 이튿날 아침(2월 13일) 새벽에 혼자 망우리를 찾았다.⁵⁷⁾

나는 만해스님의 묘소 약도를 갖고 곧장 망우리 묘지로 향했다. 큰스님의 무덤인데 표시가 뚜렷하게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안고 약도와 비교해 가며 주위를 차근히 살펴 나갔다. 그렇게 한참을 찾아 헤매다 작은 묘소 하나를 발견했다. 그곳에는 40cm 가량 높이의 돌비석에 한용운지묘(韓龍雲之墓)라고 쓰여져 있었다. 만해스님의 묘소인 것이다. 그러나 묘소 비석은 부분이 깨어져 있는 채로 방치돼 있어 너무도 실망스러웠다. 사무실에 돌아오자마자 긴급하게 간부회의를 소집했다. 간부들에게 묘소에 다녀온 사실을 알렸더니 모두 가만히 있을 일이 아니라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방치된 만해스님 묘소를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인근에 있는 한국일보 사회부장에게 전화를 걸어 제보했다. 다음 날 아침 2월 15일 한국일보 사회면에 ‘기미년 다시 돌아왔건만 쓸쓸히 버려진 님의 침묵’이란 제목의 톱기사가 실렸다. 이 기사가 나간 후 청년회 사무실 전화는 불이 났다. ‘묘소는 길을 알려달라’, ‘묘소 이장에 동참하겠다’는 문의가 빗발쳤다.⁵⁸⁾

55) 『법보신문』 2006.3.22, 「아름다운 세상 : 이원섭 시인」. 1942년 심우장에서 한번 만났고 길거리에서 만나면 인사를 하였다고 한다.

56) 이원섭은 심사위원 선정, 백일장 시제까지 책임지고 자문을 해주었다. 이원섭은 불교 시인으로 만해와도 연고가 있는 인물이다. 김광식, 「근대기 건봉사의 인물」, 『건봉사』, 불교사회연구소, 2020, p.143.

57) 『불교신문』 2008.8.13, 「남기고 싶은 이야기 : 선진규 ③」.

이렇듯이 만해의 탄신 100주년의 추모 행사가 뜨거워지는 가운데 만해 묘소의 이장 문제는 뜨거운 감자와 같은 현안으로 등장하였다. 『한국일보』에 만해 묘소의 처참한 상황이 보도되자, 『대한불교』의 2월 18일 기사에는 「탄신 1백주년 맞는 만해대선사 유택이 방치돼 있다」라는 제목으로 상세하게 보도되었다. 그는 “망우리 공동묘지에 가매장한 채 초라하게 방치, 안내판도 없어, 이장을 하여 성역화 해야”라는 내용이었다. 이에 대해 유족인 한영숙은 “몇몇 사회단체에서 이장 문제를 제의해 왔으나 그 분의 뜻에 어긋나는 것 같아 반대했다”는 내용도 나온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대불청의 선진규 회장은 만해 탄신의 날에 정식 거론을 하겠다고 답변하였다. 이와 같은 대불청의 행보는 당시 『경향신문』 사설(1979.2.24), 「만해사상의 재조명 - 탄생 1世紀 즈음해 님의 뜻 오늘에 살리자」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한편 그 무렵 전국신도회의 산하 단체 간부, 신도 등 4백여 명이 2월 28일, 만해묘소를 참배하였다.⁵⁹⁾

이제부터는 대불청 지회에서 개최한 강연회에 대해서 살펴 보겠다. 실제 집행된 행사를 개괄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울산 : 3월 1일, 상공회의소 강당
강사 : 목철우 - 3·1운동과 만해사상
- 수원 : 3월 10일, 수원불교회관
강사 : 김관호 - 만해의 약력과 일화
김어수 - 만해정신
- 대전 : 3월 18일, 심광사
강사 : 장이두 - 보살의 길
선진규 - 우리의 자세
김중봉 - 만해 일화
- 부산 : 3월 18일, 소림사

58) 『불교신문』 2008.8.27, 「남기고 싶은 이야기; 선진규 ④」.

59) 『대한불교』 1979.3.1, p.1, 「전국신도회 이후락회장 등 만해묘소 참배」.

- 강사 및 주제 : 김관호, 선진규(예정)⁶⁰⁾
- 총무 : 9월 9일, 총무불교회관
주제 : 나란 무엇인가⁶¹⁾

대불청은 이렇게 지회에서 만해사상 강연회를 개최하였다. 당초 대불청은 ‘기미 60돐 만해사상 기념 대도시 강연회’를 위의 4개 처(부산, 대전, 울산, 수원 등) 이외에도 강원도, 경주, 인천, 속초, 대구, 청주, 광주, 강릉 등에서도 열려고 검토하였다. 그러나 어떤 사연인지는 모르지만 개최되지는 않았다.⁶²⁾

한편 대불청이 관심을 가졌던 만해묘소 이전 사업은 끝내 성사되지 못하였다. 이는 후손의 반대도 있었지만 만해기념사업회의 문제가 작용하였다. 즉 만해 한용운 선생 기념사업회가 전국신도회 중심으로 결성되었기에, 기념사업회는 전국신도회장인 이후락 개인에 의존한 경향이 심하였다. 이에 대해서 선진규는 다음과 같이 회고하였다.

그런데 갑자기 당시 이후락씨가 회장으로 있던 전국신도회가 중심이 돼 만해기념사업회를 구성한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이러한 보도(필자 주 : 만해묘소 황무지 상황)가 나간 후 그렇게 찾던 사람들의 발길이 끊겼다. 이후락 회장이 전담하게 됐다고 하니 모두 잘 할 것이라고 안심했다. 그도 그럴 것이 이회장은 박정희 대통령 비서실장, 중앙정보부장 등 권력의 실세였기에 뭐든지 이를 수 있는 힘이 있었다.

우리 청년회 간부들은 일언반구 없이 기습적으로 이뤄진 기념사업회 구성에 쓸쓸했지만, 잘 됐다고 생각하고 전국신도회가 추진하는 만해기념사업에 동참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렇게 급조된 기념사업회가 그간 언론들의 만해스님 관련 보도를 인용, 성급하게 꾸며낸 참모들의 약삭 빠른 역할이라 생각하니 앞으로 이룩될 일들이 염려스러웠다.⁶³⁾

60) 『대한불교』 1979.3.25, p.3, 「만해탄신 백주년 기념 강연회」.

61) 총무 강연회는 법회라고 보도되었는데, 만해탄신 100주년 기념 강연회인지는 확인할 내용이다.

62) 필자의 조사에 의한 결과이다. 누락된 것이 있을 수 있다.

위와 같이 전국신도회가 중심이 되어 만해기념사업회가 1979년 3월 1일에 결성, 출범하였다.⁶⁴⁾ 만해기념사업회는 그해 8월, 『겨레의 큰별 : 萬海 韓龍雲先生 略傳』(30면)을 펴냈는데, 그 펴내는 말에서 영령을 모시는 만해공원을 조성하고, 만해기념관을 건립하여 교양강좌와 문화행사를 주관케 하고, 만해기념재단을 설치하여 만해사상을 世世傳承케 하는 사업을 밀고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선진규의 회고에 암시되었듯이 이후락이 주도한 만해 기념사업은 중도하차 하였다. 이후락은 1979년 9월에 신도회장에서 사임하였다.⁶⁵⁾ 그리고 그는 1979년 10월 26일, 이른바 10·26 사태(박정희 대통령 서거)에 의한 정치적 격변에 휘말리며 권력의 중심부에서 배제되었다. 그후 1980년의 5·18 사건과 10·27 법난이 일어나자 전국신도회, 만해기념사업회는 심각한 분란을 겪었다. 이런 구도하에서 만해기념 사업은 중단되었다.

그러나 대불청의 만해정신의 계승과 추모 사업은 대불청으로서는 큰 의의를 갖는 것이다. 이에 대한 선진규의 자평을 들어보자.

청년회가 주최한 만해스님 100주년 탄신 100주년 및 3.1절 60주년 기념행사는 그 동안 막연히 알려져 있던 스님의 업적과 사상을 세상에 학술적으로 알려지게 된 쾌거였다. 전 불자들에게 자긍심을 일으키는 계기가 됐고 청년 불자들에게는 정신적 뿌리를 확고히 함으로써 불교운동에 새로운 불을 지피는 출발점이 됐다.⁶⁶⁾

즉 대불청의 역사, 정체성 정비에 큰 의의를 갖게 되었다. 대불청의

63) 『불교신문』 2008.8.27, 「남기고 싶은 이야기 : 선진규 ④」.

64) 『대한불교』 1979.3.11, p.1, 「만해기념 사업회 발족 - 사업, 이사회 구성」. 정식 명칭은 만해 한용운 선생 기념 사업회 이었다.

65) 『대한불교』 1980.9.7, p.3, 「만해선사 탄신1백1주년, 추모제·세미나 개최」. 만해기념사업회(박완일)가 주관하여 만해 묘소에서 개최하였는데, 최재구 신도회장이 축사를 하였다.

66) 『불교신문』 2008.9.3, 「남기고 싶은 이야기 : 선진규 ⑤」.

이와 같은 사업은 당시 『대한불교』도 사설에서⁶⁷⁾ 높은 평가를 하였다. 즉 묘소 참배, 세미나, 백일장 등을 거행한 것은 역사 탐구의 참뜻이고 온고이지신의 의의라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기획은 하였지만 성사되지 않은 것도 있다.

대한불청(회장 선진규)에서는 민족의 한을 한 몸에 간직하고 일생을 투쟁과 절개로 일관했던 만해스님의 생애를 실감있게 볼 수 있는 일화 50여편을 모아 탄신 100주년 기념으로 「萬海 逸話集」을 간행키로 했다. 그 내용은 非理에는 철퇴를, 義에는 勇氣를, 약자에게는 慈悲를 끝없이 나타내신 일화와 지난 2월 18일 있었던 「80년대와 만해정신」이란 세미나 논문, 독립이유서, 님의 침묵 등을 부록으로 실린다.⁶⁸⁾

위의 보도기사에 나온 『만해 일화집』의 간행 기획은 성사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대불청은 이와 같은 만해사업을 통해 역사 정리 및 정체성 정비에 성공하였다. 그래서 대불청은 그 여세를 몰아서 전국불교청년대회를 개최하였다. 1979년 9월 1~2일, 조계사에서 열린 그 대회에 50여 지회에서 참가한 회원 2천여 명이 운집하였다.⁶⁹⁾ 그 대회는 만해 탄신 백주년 기념 겸 제1차 전국불교청년대회이었다. 대불청은 대회에서 ‘우리는 참회합니다’라는 주제를 내걸고 대불청의 진로와 방향에 대한 3개항의 결의문을 선언하고, 불교중흥 및 종단 진로에 대한 의견도 개진하였다. 이 대회가 성사된 것은 임원과 회원의 일치단결, 자체 조직으로 추진, 중앙과 지방지회의 유대 등에 의해서 나온 것이다. 대불청이 이와 같은 대회를 최초로 추진한 것이 놀라움이었는데, 이는 대불청이 독자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을 정도의 기반, 정체성, 지향이 탄탄하였음을 말해주는 것이다.⁷⁰⁾

67) 『대한불교』 1979.3.11, p.2, 「만해선생 탄신백주년 기념행사를 보고 - 대한불청의 활동을 격려한다」.

68) 『대한불교』 1979.7.8, p.1, 「대한불청 만해일화집 발간 준비」.

69) 『대한불교』 1979.9.16, p.3, 「전국불교청년대회」.

지금까지 1978~79년, 대불청의 만해사상 계승 사업의 전개과정을 정리하여 보았다. 대불청 뿌리 찾기 사업으로 지칭된 그 사업으로 대불청의 역사, 정체성은 정비되었다. 나아가서는 만해 선양 사업의 기반을 구축하였다. 한국현대사에서 대불청의 이와 같은 만해사업이 갖는 역사적 의의는 주목할 가치가 있다. 또한 만해 후손도 이런 사업에 긍정적인 반응을 피력하였다.⁷¹⁾ 문제는 이런 사업이 그 이후 어떻게 전개되었고, 계승되었는가이다. 특히 배영진 회장과⁷²⁾ 이상번 회장 체제에서의 만해정신 계승사업은 주목되어야 하고, 연구할 내용이 많음을 부연한다.

70) 『대한불교』 1979.9.16, p.2, 「사설 : 전국불교청년대회를 보고」. 선진규 회장 시절, 16개 지회가 156개 지회로 급상승한 것은 이런 정체성 정비, 만해사상 구현에 힘입은 것이라 하겠다.

71) 만해 딸인 한영숙은 선진규의 노력에 고마움을 피력하였다. 그래서 자신이 보관한 만해의 단주를 대불청에 기증하였다. 그런데 선진규는 이 단주가 분실될 것을 염려하여 만해와 연고가 많은 동국대에 개교 90주년 행사 때에 동국대 박물관에 기증하였다. 즉 영구, 보관되도록 동국대 총장 송석구에게 제공하였다.

72) 배영진은 회장 취임 직후에는 「대한불교청년회의 역사, 만해스님의 혁신과 자주사상으로」가 수록된 『참주인됨으로』(대한불교청년회, 1990)이라는 문건을 만들었다. 이 문건은 1990년 10월에 대불청이 대불청의 목적, 역사, 조직, 활동 내용을 정리한 팜플릿 문건(14면)이다. 그리고 취임 1년 후에는 『대한불교청년회, 우리는 누구인가?』(1991.12.15)라는 소책자(46면)를 만들었다. 이에 대해 배영진은 다음과 같이 회고하였다. 즉 “1990년 취임 첫해는 흩어지고 탈퇴한 전국의 조직을 재건하는 것이 급선무였기에 다른 일을 하기 어려웠던 것이고, 조직 정비 및 결속의 차원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에 근거한 내용을 중심으로 현실적인 사안을 담았고, 조직 정비 및 결속을 다진 후 1991년도에 이르러 대한불교청년회가 지향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그간 듣고 배운 내용과 『한용운 전집』 등 그 외 여러 문집을 통하여 청년불교가 나갈 길을 제시하고자 “우리는 누구인가”라는 주제를 달았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특별히 누구의 자문을 받은 기억은 없으며, 함께 한 여러분들의 의견을 취합 정리한 한 것입니다.” 위의 배영진 문건(2023.5.5)에서 발췌.

그리고 대불청은 1993년부터 10년간 심우장을 만해공원으로 만들려는 노력도 하였다. 『불교신문』 2012.12.1, 「대불청, 기금마련 위한 전사회 개최」.

VI. 결어

지금까지 대한불교청년회의 만해 한용운 정신의 계승 사업을 역사적인 전개 과정을 통해 살펴보았다. 맺는말은 필자가 서술한 내용을 재음미하면서, 추후 연구할 과제를 개선하는 것으로 하겠다.

필자는 이 글에서 대불청의 만해사업의 개요를 역사적으로 정리하였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결과를 찾을 수 있었다. 즉 1960년대 대불청은 만해 계승을 전혀 의식하지 않았다. 그 당시에는 조계종지, 화랑정신, 의승군(임진왜란) 등의 이념에 유의하였다. 만해정신의 계승 및 구현은 1970년 3월 만해비석(탑골공원) 건립의 계기에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대불청에서의 본격적인 만해 사업은 1978년에 출범한 선진규 회장 시절에 전개되었다. 1979년 만해 탄신 100주년 기념사업 및 대불청의 뿌리 찾기 사업이었다. 만해묘소 참배, 만해 백일장, 세미나, 강연회 등이 그것이었다. 이런 사업으로 대불청의 역사 및 이념이 재정비되었다.

1980년대 초반의 대불청은 선진규 체제에서 찾아낸 만해사상을 자신들의 지향 및 이념으로 구현하였다.⁷³⁾ 그러나 1986~1989년 무렵에는⁷⁴⁾ 질적인 변화(불교 자주화, 불교 사회적 실천 등의 모색, 종단 관계 재설정 등)⁷⁵⁾ 거쳤다. 배영진 회장 체제(1989.12.20, 회장 선출)에서 이념의 재정비⁷⁶⁾ 모색 그리고 이상변 회장 체제(1994.10.30, 회장 선출)에서

73) 『불교신문』 1982.3.28, 「曹溪宗 산하 佛敎團體 순방 : 大韓佛敎青年會」. 배조웅 11대 회장 시절의 활동, 지향이 나와 있다.

74) 그 무렵(13~15대, 유상중·김용원 회장) 대불청은 민중불교, 해인사 승려대회, 법인등록 등을 놓고 내분이 극심하였다.

75) 대한불교청년회, 『대한불교청년회, 우리는 누구인가? - 역사와 조직, 이념과 역할에 대하여』, 1991, p.20. 여기에서는 보수, 어용이라고 칭했던 대불청이 자주화, 사회적 실천으로 가는 단체로 주목받았다고 서술했다.

76) 『불교신문』 1991.4.10, p.9, 「71주년 대불청, 교회 역사 딛고 불청운동 기수」에는 대불청 창립 기념 법회에서 불교의 대중화, 민중의 구원자, 민중의 구원처가 되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다는 내용이 나온다. 이런 논의가 대불청 노선에 대한 고민이다.

의 만해계승의 노력은 더욱 구체화 되었다. 그래서 대불청 정체성(역사, 문화)의 근원에 만해정신은 굳건하게 구축되었다.⁷⁷⁾ 대불청의 만해사업은 1990년대까지 지속되었고, 현재도 실행되고 있다.

추후 연구할 과제는 선진규 체제(1978.9~1981.11)⁷⁸⁾ 이후 대불청의 만해사업(만해 백일장의 확대, 독립기념관 어록비 재건립,⁷⁹⁾ 대불청의 핵심사회로 직할 단체인 서울불교청년회에서 만해 활동, 심우장 성역화, 만해묘소 관리, 만해대학 설립 등)의 탐구, 대학생불교연합회의 만해사업(만해전집 보급, 동상 건립의 추진)과 대불청과의 관련성, 만해기념사업회(회장 : 이후락, 박완일)의 전모, 만해사상연구회(김관호·전보삼) 등이다.⁸⁰⁾ 필자는 대학생불교연합회가 『한용운전집』이 출간되기 전후에 만해사업을 계승하려고 노력한 내용을 살펴보았다.⁸¹⁾ 여기에서 나온 내용을⁸²⁾ 대불청 노선의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비교의 관점에서 참고할

77) 1991년의 대불청은 3대 강령 즉 참다운 인간, 올바른 사회, 인류의 구제는 불교사상 및 만해사상에 근거한다고 이해하였다. 또한 만해의 실천 이념을 대불청의 사상적, 조직적 뿌리라 보고 만해사상의 연구를 통해 역사적 사명을 성취하자고 강조했다. 대한불교청년회, 『대한불교청년회, 우리는 누구인가?: 역사와 조직, 이념과 역할에 대하여』, 1991, pp.25-27, pp.36-37. 김남수, 「대학생불교운동의 어제와 오늘」, 『불교평론』 13, 2002, p.301.

78) 3년 4개월 만에 퇴진하였다.

79) 1989년 11월 19일, 대불청(김용환 회장)은 독립기념관에 만해 어록비(조선독립의 이유서) 제막식을 거행하였다. 그후, 이 비석이 노후되어 이상변 회장 시절에 재건립하였다.

80) 김광식, 「만해사상의 실천 단체 연구」, 『만해축전 자료집』, 2021.

81) 김광식,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의 한용운 정신 계승」, 『대각사상』 34, 2020. 『대한불교』 1973.2.25, p.1, 「광고 : 만해 한용운선사 동상건립 취지문」. 이 취지문에는 대불련의 만해의 묘지 이장, 동상건립, 심우장 보존, 기념관 건립, 장학재단 등의 사업이 나온다. 만해기념 사업 추진 준비위의 사무실은 풍전상가 2층 239호 나온다.

82) 『대한불교』 1973.6.17, p.3, 「韓國大學生佛敎 연합회 萬海禪師 30週 추도식 엄수」. 대불련은 이때 조계사에서 추도식을 갖고 김관호(만해 제자)의 만해 강연을 들었다. 이때 대불련 간부들은 파고다공원에 있는 만해

수 있다.⁸³⁾

지금껏 필자가 분석한 이 글의 핵심 내용을 정리하면서, 추후 연구할 과제를 제시하여 보았다. 필자의 이 글이 만해정신 계승의 새로운 이해 및 대불청의 역사 탐구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비석에 헌화를 하고, 만해전집 보급과 만해 동상 건립을 논의했다.

『대한불교』 1973.7.1, p.3, 「화랑대회 행사 논의, 대불련 서울지부, 만해 동상 건립 기금 모금도」. 『대한불교』 1973.7.8, p.3, 「광고 : 한용운 전집 및 보급 안내」.

『동대신문』 1973.10.2, 「만해정신 좌표로」.

『대한불교』 1973.8.5, p.1 「광고 ; 한용운 전집」.

이러한 기사 및 광고는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의 만해한용운선사 동상건립 추진위가 주관하였음을 전한다. 광고 문안 “본회에서는 만해선사의 묘지 이전 및 동상건립을 위한 기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한 회원 한 질 보급운동을 벌리오니 회원 여러분의 적극 참여를 바랍니다” 는 내용이 대불련의 만해사업을 단적으로 말한다.

83) 김광식,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의 한용운 정신 계승」, 『대각사상』 34, 2020.

참고문헌

- 김광식, 「조선불교청년회의 사적 고찰」, 『한국근대불교사연구』, 민족사, 1996.
- _____, 「조선불교청년총동맹과 만당」, 『한국근대불교사연구』, 민족사, 1996.
- _____, 「만당과 효당 최범술」, 『민족불교의 이상과 현실』, 도피안사, 2007.
- _____, 「다술사와 항일비밀결사 만당」, 『불교연구』 48, 2018.
- _____, 「이고경의 삶과 독립운동, 만당」, 『한국 호국불교의 재조명』 7권, 2018.
- _____, 『우리가 만난 한용운』, 참글세상, 2011.
- _____, 『한용운 연구』, 동국대출판부, 2012.
- _____, 『전인적인 독립운동가, 한용운』, 역사공간, 2015.
- _____,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의 한용운 정신 계승」, 『대각사상』 34, 2020.
- _____, 「동국대의 한용운 기억·계승」, 『전자불전』 22, 2020.
- _____, 「홍성에서의 한용운 정신 계승」, 『홍성문화』 188, 2020.
- _____, 「만해사상 계승을 실천한 단체」, 『만해 한용운의 기억과 계승』, 인북스, 2022.
- _____, 「만해 한용운과 홍성, 연구의 서론」, 『만해학보』 22, 2022.
- 김성연, 「조선불교청년총동맹의 성립과 활동」, 『사학연구』 132호, 2018.
- 이경순, 「불교청년의 탄생」, 『한국 호국불교의 재조명』 6권, 2017.
- 박범수, 「대불청 운동의 과제와 전망」, 『이념과 목적사업』, 조계종총무원, 1998.
- 선 일, 『만해사상실천선양회 연구 - 백담사와의 관련을 중심으로』, 동국대 석사논문, 2022.
- 대한불교청년회, 『참주인됨으로』, 1990.
- _____, 『대한불교청년회, 우리는 누구인가?』, 1991.
- _____, 『불교중흥과 청년불교 ; 21세기를 향한 불교비전』, 1995.

Abstract

Inheriting the Spirit of Yongun Han of the Korean Buddhist Youth Association

Kim, Gwang-sik
(Professor, Dongguk Univ)

This review is an thesis examining the problem of inheriting the spirit of Han Yong-un of the Korean Buddhist Youth Association. The author is intensively investigating and exploring the issues of inheritance and practice of Han Yong-un's spirit. This came out of the intention to expand the scope of Manhae Han Yong-un's research. Currently, among the organizations that are promoting the succession of Han Yong-un's ideology, the Korean Buddhist Youth Association is at the center of it. However, there is no publication or academic arrangement of related materials.

Under this premise, the author classified and investigated the problem of the inheritance of Han Yong-un's spirit in this study by the Korean Buddhist Youth Association. He is: First, it was investigated how the current Korean Buddhist Youth Association recognizes Han Yong-un in the history of the Korean Buddhist Youth Association. Second, the history of recognition and succession of Han Yong-un was investigated at the Korean Buddhist Youth Association in the 1960s and 1970s. As a result, in the 1960s, the spirit of Hwarang, the ideology of the Jogye Order, and the spirit of the Volunteer Victory of the Imjin War were inherited. However, awareness of Han Yong-un was absent. However, when the monument to Han Yong-un was erected in Tapgol Park in Seoul in March

1970, he temporarily took an interest in Han Yong-un. Third, the period and circumstances in which the succession practice of Han Yong-un's thought emerged in detail was investigated. He originated from the history finding project of the Korean Buddhist Youth Association by Sun Jin-gyu's executive branch, which appeared in 1978. In commemoration of the 100th anniversary of Han Yong-un's birth, the executive branch of Sun Jin-gyu promoted visiting Manhae's graveyard, holding Manhae seminars and lectures, and holding a 100-day festival. Promotion of this project continued after that.

This review by the author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organizing the history of the Korean Buddhist Youth Association, expanding the study of Han Yong-un, and promoting the study of the group that inherited the spirit of Han Yong-un.

Key words

Korean Buddhist Youth Association, Han Yong-un, Han Yong-un Monument, Han Yong-un Tomb, Han Yong-un Spirit Succession Organization, Seon Jin-gyu

논문투고일 : '23. 04. 07. 심사완료일 : '23. 05. 24. 게재확정일 : '23. 05. 24.